

광양시, ‘두 번째 삼둥이 가정’ 연이은 100일 축하 방문

정인화 시장·이광용 DYE대표이사, 육아 부담 덜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한마음으로 응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6월 2일, 관내에 거주하는 삼둥이 가정을 방문해 출생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첫 번째 삼둥이 가정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뜻깊은 행사로, 정인화 시장은 직접 해당 가정을 찾아 삼둥이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손 편지와 함께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광양시 보건소는 백일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으며, 이광용 DYE 대표이사도 함께 방문해 삼태아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후원하며 기쁨을 함께했다.

또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익명의 후원자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올해 100일을 맞은 두 가정에 각각 5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전했다.

광양시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쳐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삼둥이 가정은 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약 1,77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출생축하금 3,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800만 원 △부모급여 5,400만 원 △아동수당 2,880만 원 △다자녀 출산마 함복쿠폰 200만 원 △전라남도·광양시 출생기본수당 1억 2,960만 원 등, 삼태아 3명 기준 18세까지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인화 시장은 “삼둥이가 광양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라며 “광양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모



든 가정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공감했으며,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육

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곡성군, 노인인지미술 지도사 과정 수료식 개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을 통해 자격증 취득까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2025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된 노인인지미술 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인지향상 프로그램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실습 중심의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자격증 과정은 단순한 강의를 넘어,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지역 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곡성군은 ‘2025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사업을 통해 일러화, 반려 식물 만들기, 아로마테라피,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전남도, 6월 임업인에 산마늘 생산 강창원 임업후계자

순천서 무농약·무비료 등 친환경 재배

전라남도는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순천 외서면에서 산마늘을 생산하는 임업후계자 강창원 씨를 선정했다.

강창원 씨는 2012년부터 약 10ha 면적에 습나무,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을 꾸준히 재배하고 있으며, 2022년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농약·무비료 방식의 친환경 산마늘 재배를 본격 시작했다.

현재 산마늘을 포함한 임산물 전반에서 연간 약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산마늘 생산량도 1톤에 달해 2024년 전남 전체 산마늘 생산량(3.6톤)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산마늘 산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강창원 씨는 “앞으로도 무농약, 무비료로 친환경 산마늘 재배를 확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산마늘을 드시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마늘은 흔히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린다. 특유의 마늘 향과 아삭한 식감, 풍부한 섬유질로 고기나 생선과 잘 어울리는 고급 쌈 채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항균·항암 작용, 피로회복이나 소화 기능 촉진 등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웰빙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강창원 씨는 전남 임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 임산물을 더욱 홍보해 소비자가 신선한 임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도록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한 해 전남지역 임산물 총생산액은 9천779억 원이며 이중 전국 1위 생산량을 차지하는 대표 임산물로 취나물, 산수유, 황칠나무, 시호, 조경수, 잔디, 건표고, 고로쇠 수액 등이 있다.

이승원 기자



함평읍,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촘촘한 안전망 구축

미니과일 사랑애(愛)드림·구석구석 클린클린 등 정기 방문·생활지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함평군은 3일 “함평읍이 지난달 30일 고독사 위험 가구 돌봄을 위해 지역 민간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며 “정기적인 방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독사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로, 최근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함평읍은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 업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주 1회 정기 방문하고 반찬과 과일 등 먹거리 전달, 말벗 등 정서적 돌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절 등 주요 시기에는 대청소와 방역 서비스 등 생활환경 개선도 병행해 심신 건강을 함께 돌볼 방침이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동참해 주신 키즈 테이블 나민선 대표, 희희낙락 카페 유가희 대표, 사회적기업 ㈜영수환경 유성현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서적·생활적 지원이 결합된 촘촘한 돌봄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뮤지컬 명성황후’ 청소년도 올렸다!

화순군청소년수련관 공연예술 관람, 특별한 문화 체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5월 31일 청소년 35명과 함께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뮤지컬 명성황후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 체험은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기념 공연으로 조선 말기의 역사적 상황을 명성황후의 생애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감성적인 울림으로 큰 반응을 받았다.

서울을 시작으로 한 전국투어 전주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무대 디자인

과 시대감을 살린 조명, 영상 효과는 관객들의 몰입감을 극대화했으며, 특히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역사에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은 “웅장한 무대와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를 통해서 명성황후의 삶과 조선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어 좋았고, 김소현 배우의 고음을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동영상만으로 보던 뮤



지컬을 직접 눈앞에서 생동감 있게 본 것은 처음이었고, 배우들의 연기와 강렬한 노래로 뮤지컬의 재미에 푹 빠졌다”라며, “수련관에서 하는 다음 체험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임경우 화순군 가족정책실장은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문화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